

#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 :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Family Life Issues of Middle Aged Apartment-Residents in Seoul: Focused on Time Us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한양여자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임혜경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기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재순  
한국 청소년 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성혜  
울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송혜림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General Education for Women, Hanyang Woman's Junior College

*Assis. Prof. : Hye Kyung L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Jeong Bin Im*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 Prof. : Yon 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 Prof. : Jaeson Cho*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enior Researcher : Seong Hye Ko*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

*Fulltime Lecture : HyeRim Song*

---

\* 본 연구는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time use of the middle aged apartment-residents in Seoul as a part of collaborative study of family life issues of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7 fulltime housewives with at least one child in a middle or high school. Data were analysed by means of the statistics of mean,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a SPSS/PC<sup>+</sup>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Husbands and middle or high school children do much work or study, while housewives do housework about 6 hours a weekday.

Much housewives don't manage their time use. Housewives have much leisure time and their main Leisure activity is TV watching. Much of them don't satisfied with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with time use of housewives are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effected by time management and active leisure participation. Most of housewives don't satisfied with their time use.

## I. 서 론

본 연구는 가정학 내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도시의 중류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 실태와 문제' 연구라는 공동연구(임정빈 외 7인, 1995) 중의 일부로서, 본연구에서는 시간사용의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간사용의 문제는 가정학 발생 초기부터 관심을 받아온 연구주제로서, 가족원의 시간사용을 파악하면 다른 어느 측면에서의 파악에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생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시간사용과 분리

된 인간의 행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사용은 항상 인간의 행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시간의 결합적 개념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같은 시간의 성질에 따라 오늘날 사회변동, 복지수준의 측정 등을 위하여 시간사용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정학 내에서도 가족원의 행동 분석과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원의 시간사용이 연구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여성취업의 증가,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정기기의 발달,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른 가족원의 시간사용 양식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파악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김외숙·이기준, 1988).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이후에 가족원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주부의 시간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

어서 주부의 시간사용과 다른 가족원의 시간사용간의 관계나 가족원의 시간사용과 생활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주기별로 세분하여 특정단계에 있어서의 시간 사용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이전단계에 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중년기의 특징이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시간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40대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문제를 파악한 선행연구에서(옥선화 외 5인, 1991), 주부 자신의 건강과 여가 선용 문제가 자녀 문제 다음으로 비중있는 문제로 보고 되는 것으로 볼 때에도 이 단계의 생활에서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 남편, 자녀 등 가족원의 시간사용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가족원의 시간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다른 가족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비취업주부의 여가생활을 검토함으로써 시간사용과 관련된 생활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대도시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년기 부부와 중고교생 자녀의 주요활동별 시간사용과 부인의 장단기 시간관리, 여가활동참여 및 여가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간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년기 가정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의 주요활동별 시간사용

본 연구는 가족의 시간사용을 통해 가정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가족의 구성원인 부인과 남편, 자녀의 시간사용을 함께 파

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족의 시간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부인의 시간사용을 연구한 것이고(안녕희, 1977; 임정빈, 1980; 김효숙, 1983; 임정빈·임혜경, 1992) 부부나 (이기영 등, 1994; 이기영·이승미, 1994), 부부와 자녀(이정수, 1984; 이정수·고경우, 1984)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의 시간사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부인과 남편, 자녀, 각 가족원의 평일 생활시간의 3영역에 해당하는 주요활동인 취침시간,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 가사노동시간, 직업관련시간, 학업관련시간에 소비하는 시간사용을 통해 중년기 가족의 시간사용 구조와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인의 시간사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부인의 취침시간은 7시간 26분(안녕희, 1977), 6시간 30분(임정빈, 1980), 7시간(김효숙, 1983), 7시간 12분(임정빈·임혜경, 1992), 7시간 13분(이기영 등, 1994)으로서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시간 즉 7시간 내외를 취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큰 차이는 없지만 주부의 연령이 40대이고(김효숙, 1983) 막내자녀가 국민학교 이상이거나 중학교 이상인 부인의 취침시간이 다른 단계의 부인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나(이기영·이승미, 1994) 중년기 부인은 다른 단계의 부인보다 비교적 취침시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9시간 9분(안녕희, 1977) 11시간 48분(임정빈, 1980), 7시간 9분(김효숙, 1983) 8시간 48분(임정빈·임혜경, 1992) 8시간 20분(이기영 등, 1994) 등으로 연구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대적 변화 외에도 가사노동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이 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특히 막내 자녀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내자녀가 국민학생인 경우에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일치되는 반면,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령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슷하거나(임정빈·임혜경, 1992) 미취학인 경우보다는 적지만 국민학생인 경우 와는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고(이기영·이승미, 1994), 30대와 40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안녕희, 1977; 김효숙, 1983) 막내자녀가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년기 가정의 주부는 다른 단계의 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일률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부인의 여가시간은 가정생활주기의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시간사용을 보면 가정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일정수준의 생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양자가 대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녀출산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면 대조적으로 여가시간은 감소하며 자녀연령의 상승과 함께 다시 가사노동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이기영·이승미, 1994).

그런데 우리나라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은 그와 다른 경향을 보여 막내자녀가 국민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생활주기의 진행에 따라 20분내외의 차이를 보일 뿐 전반적으로 2시간 10분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중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는 가정생활주기의 단계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여가활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부의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은 1시간 11분(안녕희, 1977) 1시간 24분(임정빈, 1980), 1시간 18분(김효숙, 1983) 2시간 13분(이기영 등, 1994)으로 최근의 연구일수록 많은 시간을 나타내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시간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기영 등(1994)의 연구를 중심으로 남편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남편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7시간 35분, 가사노동시간은 20분, 수입노동시간은 10시간 33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은 1시간 16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조사하여 부부간의 시간사용구조를 비교하였는데 가정생활주기상 중년기에 해당하는 막내자녀가 국민학생이거나 중학생이상이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은 아내보다 취침시간은 20-30분 정도 있지만, 노동시간이 3시간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시간사용에 있어 노동, 생리, 여가 영역별 배분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남편의 장시간 노동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편의 11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직업노동은 가사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Nichols & Metzen, 1978; 윤명희·임정빈, 1985; 송혜림, 1988)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성역할의 고정화를 초래하여 부부가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평등적 시각에 장애로 작용하여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현아·이기영, 1994).

다음으로 가족의 1일 생활행동가운데 자녀의 1일 생활행동을 조사한 연구(이정수, 1994)를 중심으로 중·고교생 자녀의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중·고교생 자녀(12-17세)의 취침을 포함한 개인관리시간은 8시간 17분, 가사노동시간은 35분, 학업시간은 9시간 8분, 사회·여가활동시간은 2시간 39분이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생활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민학생 자녀보다 중·고교생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고 학업시간이 크게 증가하며 대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입위주의 교육적 현실에 따르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여 1981년과 1990년의 청소년의 시간사용을 비교한 연구(이정덕, 1991)에 의하면, 1990년 전기 청소년(10-15세)의 취침시간은 8시간 29분, 식사시간은 1시간 28분, 가사시간은 21분, 학업시간은 8시간 19분, TV시청시간은 2시간 4분으로 1981년에 비해 취침시간은 증가하였고 가사시간은 감소하였다. 1990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16-19세)의 취침시간은 7시간 8분, 가사시간은 14분, 학업시간은 9시간 25분, TV시청시간은 1시간 16분으로 나타나 1981년에 비해 취침, 학업, TV시청시간은 증가하였으며 가사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 자녀의 시간사용은 연령과 학교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

이는데 특히 16-19세의 후기 청소년은 학업시간과 TV시청시간이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TV시청외 전 전한 여가활동시간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부인의 시간관리

시간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인 사고에 의해 의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이를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인적 자원이므로 가정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가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체계에서의 관리행동중 계획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을 계획하면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상충되는 활동간의 시간갈등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정관리의 계획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연숙, 1983 ; 조영희, 1985 ; 조미환, 1990 ; 구혜령 외, 1992) 구체적으로 시간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시간사용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앞으로 시간사용계획과 시간사용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계획적인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도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자원관리체계의 산출로써 관리에 대한 만족을 연구하면서 Newton(1978)은 관리만족의 개념에 주어진 시간의 양을, Heck(1983)은 자유시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간사용만족은 관리만족의 하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홍성희(1994)는 시간계획을 시간관리의 한가지 방안으로 보고 시간계획이 가정관리의 산출인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시간계획을 많이 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 3. 부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도

현대생활에서 여가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서 모든 여타행동과 관련되고 일의 중단이 아닌 오히려 일을 전체로 한 노동력 재생산의 시간이며 활동이다(한경미 · 황덕순, 1990). 전업주부의 경우 여가시간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 있는데(한국방송공사, 1982, 1984, 1986, 1988) 증가한 여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가활동이란 여가시간,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으로서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김외숙, 1991), 한경미 · 황덕순(1990) Firestone과 Shelton의 분류에 따라 여가활동을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인 여가로 나누고 적극적인 여가에 창조적인 활동, 직접하는 스포츠, 영화관람 및 문화행사와 사교활동을 포함시키고 소극적인 여가에 대중매체 이용, 독서, 한담과 휴식을 포함시켜 전업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을 분석한 한경미 · 황덕순(1990)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은 1시간 10분이고 소극적 여가시간은 4시간 43분으로 소극적 여가시간이 적극적 여가시간의 약 4배정도로 나타났다. 임정빈 · 임혜경의 연구(1992)에서도 소극적 여가시간 2시간 48분이고 적극적 여가시간은 36분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김외숙, 1991)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소일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가운데에서도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를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으로 소일활동, 가정지향활동, 사교활동, 자기개발활동, 종교 · 사회참여활동의 순서로 점차 참여도가 낮아졌다. 생산적 기혼여성에 대한 조희금(1993)의 연구,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한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도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기회를 통해 자기발전과 성취,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주어진 여가

시간을 소극적인 활동들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일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현상은 어느 사회나 계층, 연령에 있어서나 동일한 점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편중의 정도가 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여가활동양상을 보이는 주부들은 여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전국 14세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이라는 네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데(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중년기 부인들이 여가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고교생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전업주부로서, 서울시 강남·북의 분양평수 35·45평과 15·25평 아파트단지 34개 지역에서 표집하였다.

조사는 1994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과 학부생 40명이 대상지역 아파트를 방문하여 일부는 자기기재식으로, 일부는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배부된 387부 중 34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307부를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공동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중 시간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족(부인, 남편, 중고생 자녀)의 활동영역별 시간사용, 부인의 시간관리,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만족도, 시간관리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영역별 시간사용에 대해서는

활동을 제시하고 시간양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으며, 여가활동참여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여가만족도와 시간관리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SPSS/PC<sup>1</su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방법으로는 가족원의 시간사용, 부인의 시간관리,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만족도 및 시간사용만족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를, 가족원 간의 활동영역별 시간사용간의 관계,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만족도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시간관리여부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와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여가만족도와 시간사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참여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부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정보가 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시간사용에 있어서의 가족원 간의 역동성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고, 주부 이외 가족원의 시간사용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사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일지법이 신뢰도 및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Robinson, 1985),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제와의 공동연구로 인한 질문지 구성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괄질문에 의하여 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년기 비취업주부로서, 강북지역 거주자가 47%,

\*\*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연구의 일부로서, 보다 상세한 연구방법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1) : 주생활을 중심으로(이정빈 외 7인:1995)"를 참고하기 바람.

강남지역 거주자가 53%이고, 아파트 규모는 30평 이하가 53%, 31평 이상이 47%이다.

부인의 연령은 40대가 71%이고 30대가 24%이다. 자녀수는 평균 2.3명이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1%이고 3명(22%), 1명(11%), 4명이상(6%)의 순으로 적은 분포를 보인다. 부인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46%이고, 다음으로 대졸이상(35%), 전문대졸(11.1%), 중졸이하(8%)의 순이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 관리직이 3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무직(29%)과 자영상공인(23%)이며, 단순노무서비스직이 9%이다. 총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월평균은 205만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본 조사대상자 가정의 소득은 일반도시근로자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가족의 주요활동별 시간사용

먼저 가족구성원의 생활실태를 시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인과 남편, 자녀(중고교생 자녀 중 첫째)의 주요활동별 시간을 평일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가족원의 주요활동별 시간 (평일)

(단위 : 시간 : 분)

취침시간을 보면 부인은 6시간 21분, 남편은 7시간 17분, 중고교 재학중인 첫째 자녀는 6시간 30분으로 남편의 취침시간이 가장 길고, 부인의 취침시간이 가장 짧다. 가족들의 취침시간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인과 남편 사이에 상관관계가 특히 높았고( $r= .43$ ), 어머니와 자녀의 취침시

간도 관계가 있었다( $r=.30$ ).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부인의 취침시간은 자녀의 다른 활동시간과 관계가 깊어, 자녀의 학업관련 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취침시간이 감소하였다 ( $r=-.21$ ). 남편의 취침시간은 자신의 가정외 활동시간( $r=-.22$ )과 부적(負的)인 관계가 있었고, 텔레비전 시청시간( $r=.22$ )과는 정적(正的)인 관계가 있었다. 자녀의 취침시간은 자신의 학교 및 학년( $r=-.60$ )이 높을수록, 학교관련시간( $R=-.55$ )이 길수록 감소했다.

다음으로 자녀양육을 포함한 총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부인은 평일평균 6시간 8분, 남편은 50분, 자녀는 22분이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총가사노동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나 자녀양육시간이 많을수록 증가했다( $r=.20$ ).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정외활동시간과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남편 중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35.9%에 이르며(자녀양육을 제외할 경우 79.8%), 남편의 가정외 시간이 10시간 이내인 경우가 6.5%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은 서구에 비하여 적으며 (Sanik & Stafford, 1986), 이는 성적 위주의 진학제도와 직결된 결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 중 자녀양육시간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평일평균 부인은 1시간 48분, 남편은 38분이다. 부인과 남편의 총가사노동시간은 서로 관계가 없는데 비하여, 부인과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또는 자녀양육시간이 서로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하는 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Key, 1988),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은 보완제적인 성격이 강한 점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부인의 자녀양육시간이 감소(증가)하면 그 대신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이 증가(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일한 경향으로 자녀양육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간의 취침시간이 상관관계를 갖는 점과 함께 부부간의 행동의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남편과 자녀는 직무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평일평균 12

시간 47분을 가정외 활동에 보냈는데, 그 시간은 대부분 직무관련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남성의 장시간 노동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특징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현아·이기영, 1994). 중고생자녀는 10시간 14분을 학교관련활동에 보내고 학교외에서의 공부에 3시간 20분을 사용함으로써 평일평균 13시간 34분을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중고교생의 학업시간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교되는데(NHK放送文化研究所, 1994), 한국의 중고교재학생은 일본학생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학업에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NHK放送文化研究所, 1993).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여가활동인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보면 본 조사대상 가족원은 평일평균 1시간 이상씩 부인>남편>자녀의 순으로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아버지의 시청시간과 낮은 관계가 있었고( $r=.15$ ), 어머니의 시청시간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상에서 가족원의 평일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자녀는 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며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원 각자의 생활시간구조에서 시간배분이 활동영역별로 균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시간배분에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장·단기시간계획 유무

계획유무	단 기		장 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	77	25.2	214	71.3
무	229	74.8	86	28.7
계	306	100.0	300	100.0

## 2. 부인의 시간관리

본조사대상 부인들은 장단기별로 어느 정도 시간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먼저 단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시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74.3%이고, 반면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주부는 25.1%로서 약 1/4의 주부만이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인의 장기시간관리를 보기로 한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인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녀가 모두 성장한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28.7%는 “그때 가봐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다”라고 답했으며, 58.0%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 13.3%만이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즉, 노년기를 크게 멀리 두지 않은 중년기 부인들의 70% 이상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하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실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13%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인의 시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보다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점을 알 수 있다.

## 3. 부인의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만족도

본연구에서 부인의 평균 연령은 약 43세이고, 막내자녀의 연령은 약 14세이며, 학령기 이하의 어린 이를 가진 부인은 3.3%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사노동요구가 높은 가정생활단계는 거의 벗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사대상인 전업부인의 경우 자녀돌보기를 포함한 총가사 노동시간이 평일평균 6시간 8분으로 이들은 남편과 자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여가시간을 이들은 어떤 활동에 보내며, 여가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여가활동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주부의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선행연구(김외숙, 1991)를 기초로 13항목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6점 리커트 척도(1점 : 거의 하지 않는다 - 6점 : 거의 매일 한다)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여가활동요인별 및 개별활동별 참여도 수준은 <표 3>과 같다.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활동은 TV시청으로서 이 활동은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참여도를 보인 활동이 사교활동으로서 평균 1개월에 한두번 하는 정도이다. 가정지향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사교활동에 대한 참여도보다 약간 낮으나 역시 평균적으로 1개월에 한두번 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참여도가 높은 활동이 자기개발활동이다. 한편 종교·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가장 낮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와 사회단체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적인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김외숙, 1991), 소일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고, 종교·사회참여활동 참여도가 가장 낮은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대상 부인들의 사교활동 참여도는 가정지향활동 참여도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주부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이 중년기 부인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활동 참여도는 증가하고 가정지향활동 참여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외숙, 1991). 본 조사대상자는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외숙의 선행연구보다 평균 연령이 약 6세 많다.

일반 주부와의 약간의 차이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부인의 경우 주로 소극적 여가활동인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개

&lt;표 3&gt; 여가활동 참여도

여 가 활 동	참여도 평균	참여도 표준편차	여가만족도와의 상관계수
소일활동	5.71	.84	.05
텔레비전보기	5.71	.84	.05
사교활동	3.30	.08	.15*
친구, 친지, 이웃만나기	3.91	1.21	.05
계, 친목회, 동창회 등 모임	2.68	.86	.23**
가정지향활동	3.05	.69	.22
특별음식만들기, 집안가꾸기	3.58	1.36	.12
시장, 백화점나들이, 가족과의 외식	3.34	1.01	.05
야외나들이, 여행	2.23	.85	.28**
자기개발활동	2.88	.92	.40**
독서, 음악감상	4.58	1.51	.20**
운동	3.67	1.84	.22**
취미, 교양강좌 등 참석	2.34	1.32	.34**
강습 이외의 취미활동	2.22	1.52	.30**
음악회, 전람회, 연극 등 문화활동 참여	1.78	.84	.30**
종교·사회참여활동	2.36	1.15	.24**
종교활동	3.07	1.59	.14
사회봉사, 사회단체 참여	1.68	1.16	.25**

\*p&lt;.05    \*\*p&lt;.01

인적 발달과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활동에는 참여가 미약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생활이 소극적이고 비사회지향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가활동참여 실태를 보이는 부인들은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아주 불만족스럽다 - 5점 : 아주 만족스럽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 2.92로서 그저 그렇다는 수준에 약간 못미쳤다.

부인의 여가만족도가 여가활동참여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면, 여가만족도는 적극적 여가활동(다섯유형 중 소일활동 제외) 참여도와 가장 관계가 높고( $r=.41$ ), 적극적 활동 중에서도 자기개발활동참여도( $r=.40$ )와 관계가 깊으며, 다음으로 종교·사회참여활동, 가정지향활동, 사교활동 참여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활동으로는 취미·교양강좌 등 참석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r=.34$ ). 그러나 부인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소일활동인 텔레비전 시청과 여가만족도 사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5$ ). 이러한 결과에서 여가시간의 양보다 여가활동의 내용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가시간의 양<sup>1)</sup>과 여가만족도가 낮은 상관계수( $r=-.01$ )를 보이는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부인의 여가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여가활동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여가활동참여도를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투입방식은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투입되는 단계별 투입방법(Stepwise)을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Y = 1.73 + .37L1 + .14L2 + e \quad (R^2 : .18)$$

$Y$  : 여가만족도

L1 : 자기개발활동

L2 : 종교·사회참여활동

e : 오차항

$$Y = 1.75 + .18A1 + .12A2 + .14A3 + .13A4 + .12A5 + e \quad (R^2 : .19)$$

$Y$  : 여가만족도

A1 : 취미·교양강좌 등 참석

A2 : 계·친목회·동창회 등 모임참석

A3 : 운동

A4 : 음악회·전람회·연극 등 문화활동참여

A5 :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

e : 오차항

먼저 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유형은 자기개발활동이고 다음으로 종교·사회참여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이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8%이며, 나머지 세 가지 여가활동유형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개별적 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취미·교양강좌 참석이며, 그 다음으로 계·친목회·동창회 등 모임참석, 운동, 음악회·전람회·연극 등 문화활동참여,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다섯 종류의 여가활동참여도는 여가만족도의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인의 시간관리에 따라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여가만족도는 단기시간관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즉 시간계획을 하는 집단의 부인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인들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부인의 여가만족도는 장기시간계획과는 관계가 없었다.

부인의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 $r=.37$ )를 보여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실태를 분석하

1)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만 질문하였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24시간·취침시간·가사노동시간으로 추정하였다.

〈표 4〉 단기시간계획 여부에 따른 여가만족도

집 단	빈 도	평 균	t
유	77	3.18	10.47**
무	228	2.82	

\*\*p&lt;.01

고 여가만족도가 여가활동참여도, 시간관리,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인들은 여가시간은 많지만 여가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자기개발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은 별로 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에 보내고 있어 여가시간의 사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

하루 6시간 정도 가사노동을 하고 2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지내는 아파트 거주 중년기 부인들은 자신의 시간사용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아주 불만족스럽다·5점 : 아주 만족스럽다)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는 여가만족도와 유사하게 중간 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평균 2.96을 나타내었다.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가 부인의 시간사용 실태 및 시간관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사용만족도와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r=.00$ )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사노동 시간양과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시간사용만족도는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사용만족도가 여가활동중에도 소일활동참여도와는 거의 관계가 없으나( $r=.09$ ), 소일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여가활동과의 관계가 높은 점( $r=.32$ )에서도 알 수 있으며, 결국 시간사용만족도도 여가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와 더 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중에서도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여가활동참여도를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투입방법은 여가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투입방법을 사용하였다.

$$Y = 4.08 + .18L1 + .17L2 + .14L3 + e \quad (R^2 = .12)$$

Y : 시간사용만족도

L1 : 자기개발활동

L2 : 사교활동

L3 : 종교·사회참여활동

e : 오차항

$$Y = 3.81 + .20A1 + .18A2 + .14A3 + e \quad (R^2 = .11)$$

Y : 시간사용만족도

A1 :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

A2 : 친구·친지·이웃만나기

A3 : 운동

e : 오차항

먼저 다섯가지 여가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유형은 자기개발활동이고 다음이 사교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이다. 가정지향활동과 소일활동은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적 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이고, 다음이 친구·친지·이웃만나기와 운동이며, 이들 세 종류의 여가활동이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를 11%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시간관리여부와 시간사용만족도별 집단간 차이를 보면, 단기시간계획을 하는 집단( $p<.01$ ) 및 장기시간관리를 잘 하는 집단( $p<.05$ )의 부인들이 자신의 시간사용방식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는 앞에서 살펴본 여가만족도와 높은 정적 관계( $r=.60$ )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표 5〉 단기시간계획여부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

집 단	빈 도	평 균	t
유	77	3.04	10.53**
무	229	2.73	

p&lt;.01

〈표 6〉 장기시간계획여부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

집 단	빈 도	평 균	t
유	214	3.10	4.61*
무	86	2.85	

p&lt;.05

생활만족도와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r= .48$ )를 보여 자신의 시간사용방식에 대하여 만족하는 부인이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시간사용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인의 시간사용만족도는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중요한 생활의 한 측면이라는 점, 그런데 많은 중년기 부인들이 자신의 시간사용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년기 부인의 시간사용만족감이 낮은 이유에는 이들이 시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의 분양면적 35-45평, 15-25평 두 종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년기 전업주부 307명을 34개 지역으로부터 표집하여 조사한 자료를 SPSS/PC<sup>+</sup> 프로그램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피어슨의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족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남편들과 중고교생 자녀들은 장시간을 노동 또는 학업 관련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인들은 평

일 약 6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둘째, 시간관리를 하지 않는 부인들이 많다.

셋째, 부인들은 여가시간은 많으나 주로 텔레비전 시청이나 비사회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부인들이 자신의 시간사용방식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사용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만족도는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시간관리여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자의 노동력 재생산 및 생활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감소시키야 하며, 대도시의 경우 통근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교생들이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하여 자아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

셋째, 시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비취업주부들의 자기개발활동 및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의 전반적 경향을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앞으로 아파트 규모, 교육수준 등 관련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밝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하여 집단별 문제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시간사용과 생활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에서 가정생활의 문제를 검토하는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구혜령·이기영·조영희, 도시주부의 계획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191-206.

- 2) 김명자, 중년기연구, 교문사, 1989.
- 3) 김외숙,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4) 김외숙·이기준,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 171-187.
- 5) 김효숙, 도시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6) 문옥표·김광익·김부성·임봉길·전경수,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7) 송혜림,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8) 안녕희,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16(2), 1977, 19-26.
- 9) 옥선화·이기준·이기영·이순형·공인숙, 현대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1, 135-154.
- 10) 윤명희,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1)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1994, 31-45.
- 12) 이기영·이승미,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994, 11-26.
- 13) 이연숙,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1-20.
- 14) 이정덕, 청소년의 생활시간사용 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203-221.
- 15)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103-131.
- 16) 이현아·이기영,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145-160.
- 17)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1980.
- 18) 임정빈·임혜경,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1992, 261-278.
- 19) 임정빈 외 7인,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1) : 주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3), 1995, 279-289.
- 20) 장상희, 도시중년층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1988.
- 21) 조미환,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22)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23) 조은·부정남·김주희, 중산층여성과 문화지체, (연구발표회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5.
- 24) 조희금, 생산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101-112.
- 25) 한경미·황덕순,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69-82.
- 2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열, 1995.
- 27) 홍두승,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 연구소, 1983.
- 28) 홍성희,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체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29) ———, 주부의 시간계획 및 관리전략에 따른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1994, 47-58.
- 30) 三東純子·沼アサ子·吉中哲子, 現代家庭生活設計論, 東京: 垣内出版, 1983.
- 31) NHK放送文化研究所 世論調査部, 生活時間の國際比較-歐美6個國との比較, 1994.
- 32) ———, 生活時間の日韓比較報告書, 1993.
- 33) Bennett, M. J., Constraints on Leisure in Middle Age, in Constraints on Leisure, edited by Nade, M.G.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1985.
- 34) Heck, R.K.Z.,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Cornell Univ. 1983.

- 35) Key, R. J., The Structure of Family Goals as revealed in Relationships of complementarity and substitutability in Time Allocation decisions, Dissertation of Cornell Univ, 1988.
- 36) Newton, D. L.,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 1978.
- 37) Nichols , S. Y. & Metzen, E. J.,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1978, 85-97.
- 38) Robinson, J. P.,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iaries versus alternative time use measurement, in Time, Goods, and Well-Being, edited by Juster F. T. & F. P. Stafford,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5.
- 39) Sanik, M. M. & K. Stafford, Boy/Girl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0, 1986.